



<b>EMERiCs</b> 신항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 <a href="http://www.emerics.org/">http://www.emerics.org/</a> 2018. 10. 12.   동남아시아	<b>「이슈&amp;트렌드」</b>  <b>필리핀, 투자환경 개선 조치 시행</b>  작성   신민금 전문연구원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대양주팀)
---	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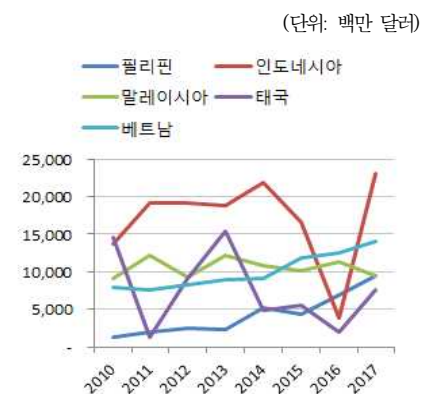
- 정부는 「2018년 사업 환경 및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」을 2018년 9월 초부터 시행함.<sup>1)</sup>
- 이번 법은 「2007년 관료제적 형식주의 타파 법(Anti-Red Tape Act of 2007)」의 개정판임.
  - 필리핀은 창업 인허가가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주요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,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사업 승인·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, 관련 부정부패 및 비효율적인 관료주의를 타파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자 함.
  -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(Doing Business)에서 필리핀은 2018년 기준 전년대비 종합 순위가 14위 하락한 113위를 기록했으며, 특히 창업 부문에서 173위를 차지함(표 1 참고).
  - 필리핀은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에 비해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저조함(그림 1 참고).<sup>2)</sup>

표 1. 동남아 주요국의 기업환경평가 순위(2018년)

구분	필리핀	말레이시아	인도네시아	태국	베트남
종합순위 (2017→2018, 190개국)	99→113	23→24	91→72	46→26	82→68
창업	173	111	144	36	123
건축 관련 인허가처리	101	11	108	43	20
전력 공급	31	8	38	13	64
재산권 등록	114	42	106	68	63
대출	142	20	55	42	29
소액투자자보호	146	4	43	16	81
세금납부	105	73	114	67	86
계약분쟁해결	149	44	145	34	66
파산해결	59	46	38	26	129

자료: <http://www.doingbusiness.org/>(검색일: 2018. 10. 2).

그림 1. 동남아 주요국의 FDI 유입액 추이



자료: UNCTAD Stat(검색일: 2018. 10. 2).

- 이번 개정법은 △ 사업 인허가 처리 기한 단축 △ 투자자 편의 제고 △ 인허가 관련 부정부패 방지 등을 골자로 함(표 2 참고).
- 정부는 이번 개정법을 통해 사업 인허가 처리 기한 단축 및 신규 사업 신청 건 기한 내 미처리시 자동승인 조항 추가 등을 통해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.

1) Ease of Doing Business and Efficient Government Service Delivery Act of 2018(RA 11032).

2) 2017년 기준 대필리핀 FDI는 약 95억 달러로, 인도네시아(약 231억 달러), 베트남(약 141억 달러)에 비해 저조함.

- 또한 개정법에는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상이한 사업신청서 표준화, 온·오프라인 원스톱 비즈니스센터 설립 등이 포함됨.
- 정부는 ‘Zero-contact policy’ 도입, 사업환경 개선 및 부패방지 관련 관리감독청 및 자문기구 설립, 법 위반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사업 인허가 관련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함.

표 2. 「사업환경 및 정부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」의 주요 내용

구분	주요내용
사업 인허가 처리 기한 단축	· 지방정부 차원의 단순 사업 인허가: 5일→3일 · 다소 복잡한 사업 인허가: 10일→7일(예. 건축 허가) · 중앙정부 차원의 고도의 기술평가 수반 사업 인허가: 20일(예. 환경인증) - 1회에 한해 동일 기간 연장 가능(단, 연장 사유 및 인허가 시기 고지 필수)
신규 사업 신청 건 자동승인	· 기한 내 미처리 시, 신규 사업 신청 건 자동승인 (단, 모든 구비서류 제출,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함)
투자자 편의 개선	· 사업 신청서 표준화: 지방정부별로 상이한 사업 신청서 양식 통일 · 원스톱 비즈니스센터(Business one-stop shop) 설립(온/오프라인) : 지방정부는 법 시행 3년 이내에 온라인 원스톱 비즈니스센터 설립
Zero Contact policy 도입	· 공무원 정보 및 연락처 비공개
관리감독 및 자문기구 창설,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	· 대통령 부속 ‘Anti-Red tape Authority’ 설립: 시행 후 6개월 이내 완료 · ‘Ease of Doing Business and Anti-Red Tape Advisory Council’ 창설 : ‘Anti-Red tape Authority’에 정책자문 제공 · ‘중앙비즈니스포털(Central Business Portal)’ 구축 : 추후 해당 포털을 통해 사업 신청 · ‘필리핀비즈니스데이터은행(Philippine Business Databank)’ 구축 : 법 시행 후 1년 내 구축 완료, 필리핀 내 등록기업에 대한 정보 저장
위반 공무원 처벌 규정 강화	· 1차 위반 시 6개월 정직, 2차 위반 시 해고 및 공직 수행 영구 금지(벌금형, 징역형(1~6년)도 가능)

자료: Ease of Doing Business and Efficient Government Service Delivery Act of 2018(RA 11032).

- 이번 개정법 시행을 두고 긍정적, 부정적 평가가 상존하나, 두테르테 대통령이 투자환경 개선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번 법 시행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만큼 정부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.
- 개정법에 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성 제고, 관련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고, 각 사안별 완료 기한도 명시되어 있는 등 구체성을 띠고 있어 필리핀의 투자환경 개선이 기대됨.
  - 다만 규정 위반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 규정, 지나치게 짧은 인허가 처리 기한 등은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.
  - 각 유관부처가 2018년 10월 말에 세부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향후 법 시행이 보다 구체화,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나, 근본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, 치안 문제 해소, 국가 이미지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 **EMERiCs**

#### 참고자료

EIU, World Bank, UNCTAD, Rappler, RA 11032, RA 9485 등